



저녁집회 DCF와 제자비전 40년	여는강의 복음의 기쁨	전제강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자비전 포럼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비전	제자비전 포럼 이슬람권 제자삼기	제자비전 포럼 청소년 제자삼기
강보형 목사	박동렬 간사	강용중 간사	오승철 목사	최누가 선교사	이재원 교사
제자비전 포럼 직장인 제자삼기	기관보고&나눔 남아공 선교	기관보고&나눔 외국인노장자	기관보고&나눔 군선교	기관보고&나눔 중국선교	
강부형 목사	김영준 선교사	허은열 목사	정기한 목사	이도마 선교사	



- 주제 : **예수, 제자** & 기쁨(마태복음 28:19~20)
- 대상 : DCF 가족,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 5일(토)
- 장소 : 장신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새문안홀 외

2019년 DCF(Disciple of Christ Fellowship) 겨울수련회

- 주제 : 예수, 제자 & 기쁨(마태복음 28:19-20)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4:00 p.m.~ 5일(토) 3:00 p.m.
-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새문안홀) 및 강의실
- 대상 : DCF 가족,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 회비 : 성인만 5만원(자녀 등은 무료), 당일 2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15501-01-060717 강수환(제자선교회)

Time Table

4일(금)			5일(토)		
시간	내용	비고(준비)	시간	내용	비고(준비)
			~8:50	Q.T. & 아침	숙소별
			9:00~9:50	전체강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찬양 : 수원 새벽이슬교회 기도 : 허은열 간사 말씀 : 강용중 간사 (DCF-USA 대표)
			10:00~11:30	제자포럼 (현재 진단하기)	진행 : 오승철 간사 1)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비전(오승철) 2) 이슬람권 제자삼기(최누가 선교사) 3) 청소년 제자삼기(이재원 교사) 4) 직장인 제자삼기(강부형 목사)
			11:50~12:50	점심식사	세교협 식당
			1:00~2:00	기관보고 (현재 나누기)	진행 : 강부형 간사 1) 남아공 선교사역(김영준 선교사) 2) 이주노동자 선교(허은열 간사) 3) 군선교(정기한 간사) 4) 중국선교(이도마 선교사)
4:00~5:00	등록 & 교제	행정팀/ & 이사회	2:00~3:00	파송예배 (미래 설계하기)	찬양 : 수원 새벽이슬교회 기도 : 박학규 간사 말씀 : 강보형 간사
5:00~5:40	저녁식사	학생 식당			
5:40~6:40	여는 강의 “복음의 기쁨”	찬양 : 평택 꿈꾸는 교회 기도 : 강형신 간사 말씀 : 박동열 간사 (DCF간사, 서울대 교수)	※ 제자포럼은 각 15분 발췌와 10분의 질의문답이 진행됩니다. ※ 기간보고는 각 15분 발췌가 있습니다.		
6:40~6:50	오리엔테이션	진행 : 오승철 간사			
7:00~9:00	저녁집회 “DCF와 제자비전 40년” (과거 돌아보기)	찬양 : 평택 꿈꾸는 교회 스킷드라마 : 새벽이슬교회 기도 : 최현영 간사 말씀 : 강보형 목사 (DCF설립, 행복한 교회)			
		기도회 : 강수환 간사 (DCF대표, 강일중 교감) 박학규 간사(선교 파송)			
9:00~10:00	소그룹 나눔	5~6명의 1개 조 ex. 복음/DCF/생활			
10:30~	DCF 총회				

※ 일정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 고

하나. 공지사항

1. 2019년 제자선교회(DCF) 전체 수련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수련회의 전체 진행은 오승철 간사입니다. 별도의 수련회에 대한 문의는 진행 데스크에서도 가능합니다.
3. 전체 수련회 일정과 병행하여 각각의 강의시간에는 자녀(유치/초등)들을 위한 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돌봄 : 이지현, 남계정 / 초등 돌봄 : 나진영)
4. 숙소에 대한 문의는 진행 데스크에 해 주십시오(가족별, 개인별 안내)
5. 행정 데스크에는 음료 및 간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여 주십시오.
6. 식사장소가 매번 달라집니다. 진행팀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십시오.
7. 1박 2일의 수련회지만, 중간 방문 및 귀가 시에는 꼭 진행팀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8. 차량의 경우 진행팀에서 확인증을 받아 주십시오.
9. 다양한 사역과 선교지 등의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제 나눔에 힘써 주십시오.
10. 수련회를 물질로 후원해 주신 정기한, 강수환, 최보희, 이승훈, 강아람 지체님 정말 감사합니다.

둘. 페이지 구성(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제자선교회 소개 및 사역의 방향 pp.4~5.
2. 전체 강의(여는 강의, 저녁 강의, 토요 오전강의, 닫는 강의) pp.7~14.
3. 부분강의(제자포럼 및 기관보고) pp.15~24.
4. 제자선교회 소식 나눔(선교사 및 기도제목 등) pp.27~34.

셋. 소그룹 나눔의 진행방식

1. 소그룹은 금요일 저녁강의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룹은 주제별[복음, DCF, 생활, 선교, 교회]로 진행됩니다.
2. 섬기는 분들은(김홍식, 유영춘, 최현영, 문종근, 강형신, 김현주, 정은실, 최보희)님이 섬겨 주십니다.
3. 본 핸드북의 pp.24~25에 소그룹 시간에 나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넷. 수련회를 위해 섬겼고, 섬기는 지체들이에요. 감사드려요.

전체진행 : 오승철 간사

행정과 진행(등록, 조편성, 안내, 방배치, 간식 등) : 박학규, 경태수, 문종근, 권복음

연락과 홍보 문서 : 강수환 간사, 박학규 간사

찬양과 특별순서(스킷드라마) : 김홍식 간사, 수원 새벽이슬교회

유아돌봄 : 이지현, 남계정

어린이 돌봄 : 나진영, 차지혜

재정 : 이지현, 정효정

사진촬영 : 유영춘 간사, 박학규 간사

홍보 디자인 및 포스터 : 오재호 목사

다섯. 앞으로 제자선교회를 위한 알림과 후원을 위해

1. 공식적인 인터넷공간 마련 전에는 강수환 대표간사님과 오승철 본부간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강수환 대표간사 paul7434@sen.go.kr / paul7434@daum.net 오승철 간사 visionsc@hanmail.net
2. 제자선교회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5501-01-060717 강수환(제자선교회)

제자선교회란?

■ 신앙고백 *Confession*

- 본회는, 성삼위일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으로 그의 자녀 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을 믿는다.
- 그러나 사람이 범죄(Sin)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을 믿는다.
-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
- 성별과 인종,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됨을 믿는다.
- 본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 또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소식이 그의 몸 된 믿음의 공동체와 헌신된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임을 믿는다.

■ 제자선교회 *Spirit* -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삼자”

- 본회는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의 능력의 모습으로 역사하심을 믿는다.
-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기쁜 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는다.
-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한다.
- 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이 세상을 복음화 하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한다.

■ 제자선교회 *History*

- 본회는, 1980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대학 청년들이 순수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로 시작하였다.
- 본회는 이후 '제자선교회/DCF(Disciple of Christ Fellowship)'라는 이름으로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의 지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나누고 훈련하는 훈련공동체로 진행하였다.
- 본회는 1988년부터는 복음의 세계화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에게 있다는 믿음 아래 본 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된 사역자(현직 교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제자양육 하는 '청소년제자선교회/YDCF (Youth DCF)' 사역을 시작하였다.
- 본회는 2007년 미국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미국지부(DCF-USA)'를 설립함으로 더 적극적인 '세계선교'의 비전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 본회는 이러한 믿음의 사역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믿음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

■ 제자선교회 *Vision*

- 본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를 향한 명령이 본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본회는 3대 목표를 가지며 이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 제자양육 - 문화,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움에 있어 '제자양육'이라는 방법을 시행하며 훈련된 제자는 또 다른 이를 제자양육 한다.
- 세계선교 - 세계선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타문화권의 국내외의 외국인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 하는 선교의 사역을 한다.
- 문화명령 - 이 땅의 '죄'로 인해 왜곡된 '문화'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 각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장이라는 영역을 선교사역지로 보고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워나간다(Mission)

■ 제자선교회 & *Church*

- 본회는 교회 공동체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 때문에 본회의 모든 회원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 본회는 특별히 이러한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세계복음화와 신앙의 훈련인 제자훈련을 위하여 함께 연합한 복음적인 초교파적 선교교회이다.

DCF 사역의 방향



DCF 대표간사 강수환(현 강일중학교 교감)

하나. 제자소명의 회복과 사역

제자전교회(Disciple of Christ Fellowship)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본회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마 28:18~20)을 비전으로 세워진 선교공동체입니다.

1. 국내사역 : 제자양육 사역을 회복하며, 구체적인 양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해외사역 : 본회 출신으로 제자소명의 비전을 품고 해외에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삼는 사역을 실천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들의 사역을 공유하며, 함께 전세계의 복음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둘.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사역

급변하는 문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파괴되고 흔들리는 신앙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1. 본회의 멤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한 복음사역(신앙교육)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사역(교재, 훈련, 수련회)과 더불어 기도운동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2. 청소년 세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교재 및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이들을 가르치는 크리스천 교사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합니다.

셋. 한국 교회를 향한 사역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모습은 교회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회는 초기의 모습부터 교회 안(in Church)에서의 건강한 제자사명을 실천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공동체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찢어지고 허물어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정확시키는 사역을 세워 나가하고자 합니다.

1. 본회의 멤버들이 교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워나가는 실천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2. 본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교류를 통해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성을 나누며(제자스쿨 등), 함께 기도와 복음사역의 문화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 2019년의 우선적 실천계획

1. 본회의 정기모임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문정역 [좋은교회] 본당에서 제자양육과 강의, 기도회 등의 모임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2. 본회의 양육시스템을 정비하여 본회의 표준 교재를 시범 제작하여 양육교재로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본회의 양육교재를 재출간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양육사역을 다시 실천해 주십시오.
3. 본회의 멤버들을 각 영역에 맞게 정리토록 하여, 해외의 제자비전 사역을 실천하는 선교사 네트워크, 본회의 제자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회원, 아울러 본회의 비전에 동참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의 네트워크를 세워 나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의 현황도 체크함으로 우리를 정비하겠습니다.
4. 연 2회의 정기 수련회(여름, 겨울)를 체계화하여 본회의 사역과 비전, 또한 주님의 명령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미국의 DCF와 더불어 세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역의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하기에 앞서

- 김홍식 간사(DCF 평택지부 / 꿈꾸는 교회 목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에 많은 감동을 받는다.
감동이 넘치는 찬양, 기도 시간에 흘린 눈물,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영감이 있는 설교,
그 예배는 은혜가 되었다.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찬양, 기도, 설교... 등등 예배에 은혜를 전혀 못 받았다.



두 부류 모두 예배를 잘 못 드렸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올려 드리는 것이다.
내가 은혜와 감동을 받으려고 했다면 잘못 드린 것이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찬양의 제사이다.
찬양 가운데 나를 제물처럼 올려놓는 것이다.
찬양을 받으시라고 올려 드리는 것이다.
찬양이 은혜롭게 인도가 되든지,
찬양에 은혜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나를 드리는 것이다.
평소에 은혜 없이 있다가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을 못하다가 교회 와서 찬양을 맘껏 해서 은혜를 느끼려는 것도 아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다.^

동역의 기쁨

박동열 교수(DCF 간사, 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장)



- 인공지능(AI) 시대의 혁명을 위한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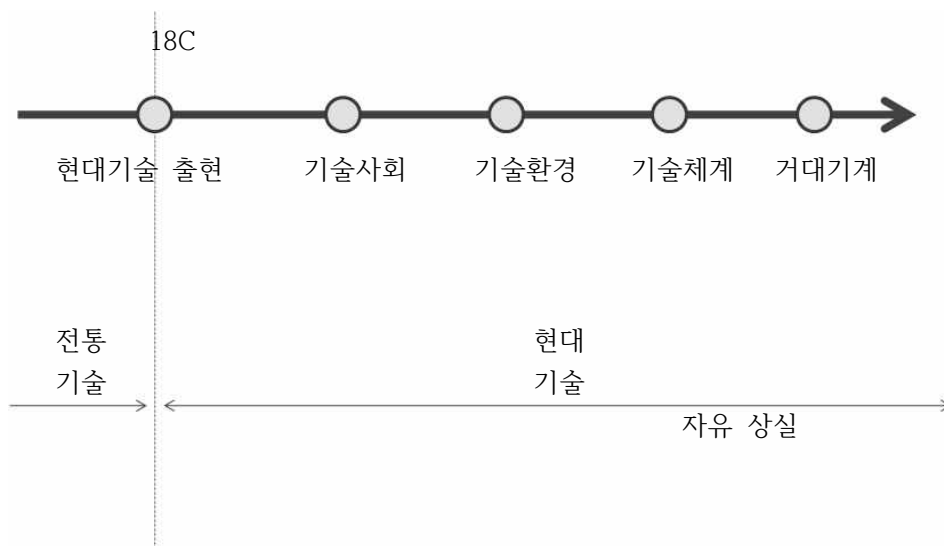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4:1-6)

I. 4차 산업혁명 개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 초연결 + 초지능

II. 기술 비판(자크 엘릴)

엘릴의 기술 발전 단계



기술의 정의

“Technique is the totality of methods rationally arrived at and having absolute efficiency (for a given stage of development) in every field of human activity.”

기술은 기계/개별 기술이 아님 -> 정신, 태도

기술은 선택의 제거 -> 합리성 & 절대적 효율성

기술은 목표 달성이 아님 -> 맹목적으로 발전

기술은 특정 도구가 아님 -> 기술은 전포괄적

현대 기술의 6가지 특징

- 1. 자동성: 선택은 없다. Ex) 3과 4중 어느 수가 큰가?
- 2. 자기확장성: 기술의 누적이 기술 창조 Ex) 잡스 신화
- 3. 일원주의: 개별 기술 배후의 하나의 기술 Ex)디지털
- 4. 기술 결합의 필요성: 기술 혁신의 불균형은 기술로..
ex) 방직기->직조기->복합공장->직조기의 적절한 배치 & 계획 생산 ->생산품 증가->상업기술(환
어음, 은행..)-> 산업기술, 운송기술->철로, 기차 시간표, 토지 수용-> 대도시, 도시계획기술...
- 5. 기술의 보편성: 전체주의적, 전지구적..
- 6. 기술의 자율성: 폐쇄성 -> 자기 목적적..

III.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명론

창세기 3장과 기술의 지위

필수적 혁명

새로운 가능성

혁명론

IV. 기독교와 혁명

기술 체계와 계시

혁명의 진앙, 엑스(X)

순응하는 종교, 기독교

기독교의 혁명성, 인격주의

V. 혁명의 힘: 연합

연합이란?

연합의 종류



■ 사역의 표준화 (E.F.G.)

■ 복음의 핵심(Crucify+Resurrection)사역의

강보형 이사(DCF 간사, 이사, 행복한 교회 담임목사)

표준화-E. F. G.

[디도서 2:11~14]

예수님께서서는“모든 족속으로 제자제자 삼으라고 말씀 하셨다(마28:19-20)”또“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뿐 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요한14:12).”고 말씀하였다. 그 약속대로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시작된 거룩한 사역은 전세계 모든대륙 거의 모든 민족에게 성취되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사형 시켰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우리의 제자 훈련도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 어깨위에 세워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그가 닿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산 제자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의 사역이 표준화 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일을 통해 모든 족속(영역)을 제자로 삼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

1. 사역의 표준(The Standard of Ministry)화

(전투에서 어깨선을 맞추듯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어깨선을 맞춰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므로 제자 훈련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 디도서 2:11~14

- 목회서신(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사역(목회)은 표준화된 규정대로 해야한다.



◆ 구원 -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모든 사람) Top-down system.

니고데모 - 유대인이며 관원 (상류층-Top)

수가성 여인 - 사마리아인으로 가정도 파괴된 (하류층-Down)

*구원의 공정성(칼빈주의-예정론 vs 알미니안주의-자유의지)

◆ 양육 -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을 채워야 함

(예화 : 독극물이 묻은 컵을 사용하려면 : 희석시킴 vs 버림)

◆ 선한 일(사역) - 성령의 은사(벧전4:10,11)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마5:16)을 위하여 열심히 해야 한다.

(은사 사유화하지 않기- 예화: 실장이 아이스크림 혼자서 먹음)

성 경	E	F	G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로마서	1 ~ 5장	6 ~ 8 장	9 ~ 16장 · 9~11장(하나님), 12~16장(사람)
출애굽기	1 ~ 12장	13 ~ 24장	25 ~ 40장

※ 참고 출애굽기

- ◆ 구원 - 보고, 듣고, 알고(1~2장) / 내려와서(3~4장) / **건져내고**(5~12장)
- ◆ 양육 - 광야생활 40년 **노예근성을 버리고** ☞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
- ◆ 선한 일 -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

2.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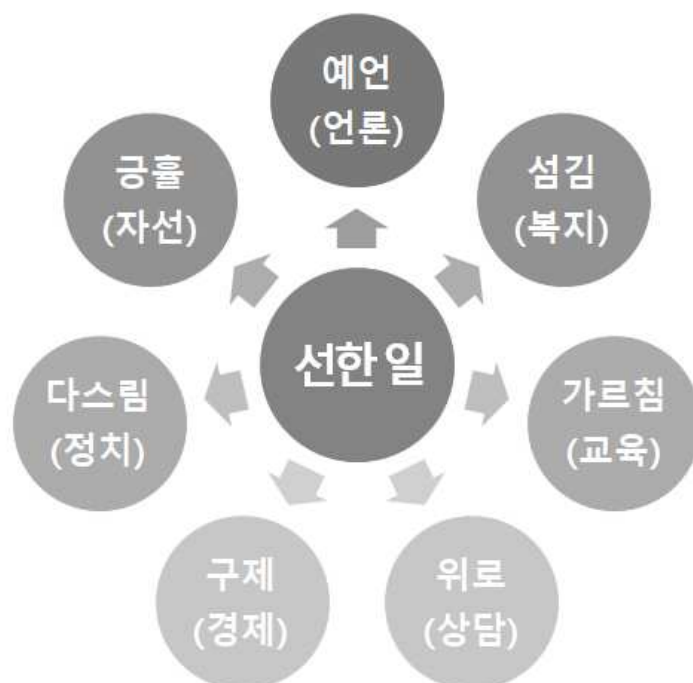
* 롬 12장 3 ~ 8절

(선한 일을 통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

1) 선한 일의 각 영역

- (1) **예언(언론)** :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해주는 모든 말은 예언이 됨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 된 말씀을 가르치면 예언)
- (2) **섬김(복지)** : 교회 뿐 만아니라 안 믿는 사람, 섬기기 힘든 자도 섬겨야,
(학교에서 믿는 선생님들과 만 좋은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됨)
- (3) **가르침** :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재밌게)
교육은 히브리어로 히누크 (다른 사람에게 봉납이라는 뜻)
→ 공부해서 남 주게 가르쳐야 함 (사관학교처럼 모든 대학 무상 교육 필요)
- (4) **정치(다스림)** : 섬김으로 정치해야 (마태 20:25-28, 한 학급의 반장처럼)
- (5) **구제(경제)** : 빈궁한자에게 구제하기위해 돈 벌어야 (엡4:28 사업하는 동기가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위해/ 한 사람의 헌신으로 5000명 살게 하는 사업가)
- (6) **위로(상담)**
- (7) **금휼(자선)**

<사역의 분야>



- 복음의 핵심(Crucify+Ressurrection)사역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

[고전 15: 12 ~ 19]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가 무엇일까?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주장한 지동설? 양자역학? 사후의 세계(내세의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 여부? 진화론?성경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마가16:11-14에 답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고전 15:3-4에 기록 되어있다(영어성경 참조)

1.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막16:11~14)

1)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

- 듣고도 믿지 않은 이유: 센달 신고 다니는 예수님의 그때 모양이 아님.
- 요20:19, 26 사·공간 초월하여 문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신 예수.
- 눅24:13~16, 33~40 사·공간 초월하여 다른 모양으로 부활.
- 요21:1~14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시어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몰라봄.
- 행 9:4~5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주여 누구시니까?' 물음.
- 요계1:12~16 요한이 본 부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2. 가장 중요한 진리(고전 15:1~4)

1) 복음의 핵심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고전15:3)과 부활(고전15:4)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 행사 등으로 죽으심은 강조하지만 부활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잘 모르므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음. 서구 부활절 방학)

2)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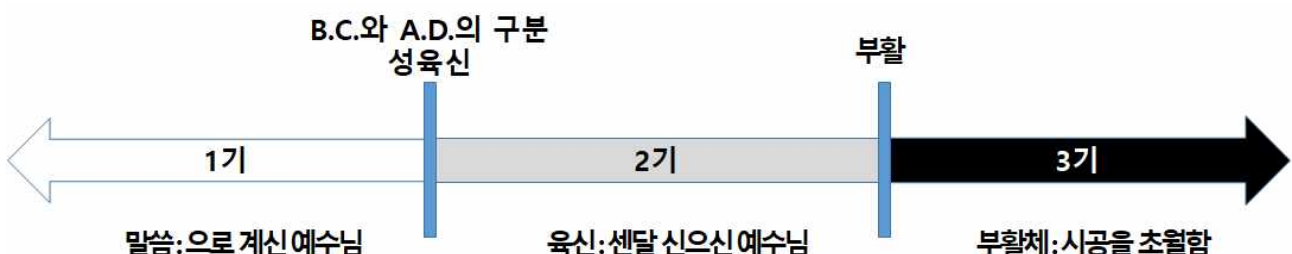
- 행 1:22 부활 증언할 사람 뽑음, 행 3:15, 4:33 부활을 증언 함.
- 행 4:2~3 부활을 증언하다 잡힘.

예) 중국의 삼자교회(정부가 운영하는 어용교회):부활 못 전함, 지하교회 : 부활 전함)

3. 부활의 정의

- 1) 부활 ≠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 2) 고전 15:53~54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입는 것.
(cf) 소생(회생)은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임)

도표로 본 예수님의 존재 이해



2)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맘속에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

(1) 고후13:5, 엡3:17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귀히 여기라

(2) 요17:21 3위 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 三位 一體 ≠ 3 Person 1 body

三位 一體 = 3 Person 1 Essence

성부, 성자, 성령이 3 person 이나 본질(본체)이 같음

體는 여기서는 body가 아니고 Essence(본질)

(옥편에 보면 體의 뜻이 몸, 모양, 본체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본체의 의미)

★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하늘에 계시고(Beyond us)

성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With us)

성령 하나님은 내재하시면서 (in us= indwelling) 계심.

4. 부활의 대상

: 모든 사람 (행 24:15, 요 5:28)

5. 부활의 종류 (요5:29)

1) 생명의 부활 : 선한 일을 행한 자 → 생명 → 영원한 생명(영생)

- 고전 15:42~44

2) 심판(사망)의 부활 : 악한 일을 행한 자 → 심판(죽음) → 영원한 형벌(영벌)

- 마 23:15 외식이란 전도해놓고 본을 보이지 못함

- 눅 13:1~5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리라

6. 부활의 등급

1) 생명의 부활 등급 (고전 15:35~44)

- 고전 15:41~42 :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름.

- 요계 20:12 생명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음.

- 히 11:35~40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

변화된 생명의 부활체의 특징

① 썩지 않는다(고전 15:42-44, 54; 빌 3:21; 요일 3:2). ②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런 형체로 변화한다(고전 15:43; 빌 3:21). ③ 신령한 몸이다(고전 15:44). ④ 변화한다(고전 15:51). ⑤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마 22:30; 눅 20:36). ⑥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요 20:19-26). ⑦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행 2:24). 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전 15:49). ⑨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눅 20:36; 계 21:4).

2) 지옥의 부활 등급

- 타 종교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선한 일' 권유하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더 나은 영광으로 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활 신앙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한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름 없는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보신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행 2:23-24; 10:39-41; 롬 1:4). 그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체한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그분의 인성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그분의 신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롬 1:3-4; 계 1:18).

구약 시대에는 부활 사상이 그리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욥이나 다니엘 선지자(욥 19:25-27; 단 12:2-3, 13) 그리고 다윗(시 16:9-10; 17:15; 71:2), 고라 자손(시 49:15), 아삽(시 73:24), 이사야(사 26:1, 19), 호세아(호 6:2;

13:14) 등이 부분적으로나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부활 사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신 구약 중간기에 오면서 ‘누가 부활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등의 문제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부활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지니고 있었지만(요 11:24),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처럼 주님의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었다(마 16:21-22; 막 8:31-33; 9:9-10; 16:14; 눅 18:33-34). 더욱이 유대 종교계에서는 부활을 절대 부인하는 사두개파가 있었는가 하면 철저하게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가 존재했었다(마 22:23).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편에 예언되었고(시 16:10-11; 행 13:34-35),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자(행 2:32; 3:15), 서신들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롬 10:9; 고전 15:4; 벧전 1:3).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이자(요 6:39-40), 당신이 친히 그리고 미리 알리신 메시지다(마 16:21; 17:23; 20:19; 27:63; 막 9:9-10; 요 2:19-22).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 하셨다.[네이버 지식백과], 부활 [復活, resurrection]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말씀사, 부활 (IVF) 부활 논쟁 (플러신대원설립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Wright ,N.T.)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롬 4:25). 그분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요(롬 6:5; 8:11),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일종의 전조다(마 27:52-53).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고전 15:17),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고전 15:19).

**참고자료

■ 부활의 증거들과 부활 후의 목격자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직후부터 부활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탄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다(마 28:11-15). 먼저, 그분의 빈 무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한다(눅 24:3, 12; 요 20:2). 또 부활의 사실을 천사들이 증거했고(마 28:5-7; 막 16:6; 눅 24:6), 파수꾼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인지했다(마 28:11-15).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눅 24:39; 요 20:20, 27; 21:12-14; 행 10:41).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남기셨다(행 1:3). 또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증언(행 4:1-2; 17:18, 31-33; 23:6, 8; 24:14-15; 26:6-8; 고전 15:19-23) 등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다.

한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막 16:9; 요 20:18), 여인들(마 28:9; 눅 24:10), 베드로(눅 24:34; 고전 15: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눅 24:13-15), 도마 이외의 열 사도들(눅 24:33-43; 요 20:20-24), 열한 사도들(마 28:16-17; 눅 24:50-51; 요 20:26), 일곱 사도들(요 21:1-2), 오백 여 형제들(고전 15:4, 6), 야고보(고전 15:7), 다메섹 도상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바울(행 9:3-6; 22:17-19; 23:11; 고전 15:8), 스테반 집사(행 7:55), 밧모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계 1:9-10) 등이다.

■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해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뤄진다(마 22:28-29; 행 2:24, 31-32; 17:31; 롬 4:24; 고전 6:14; 15:15; 고 후 4:14). 그리고 부활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요 6:40; 11:24-26; 롬 6:5; 8:11; 고전 15:54-56). 죽은 자의 부활은 성도의 산 소망이다(고전 15:12-15; 벧전 1:3).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엡 2:12; 살전 4:13).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는 모두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된다(행 24:15; 고전 15:12-22). 성도는 구원의 상급을 받기 위해,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요 5:29; 계 20:5-6, 11-15). 성도의 부활체는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난다(막 12:25). 부활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한다(마 19:28; 눅 22:28-29).

■ 마지막 때의 부활

마지막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요 5:28; 행 24:15; 고전 15:20-21, 50-51; 계 20:13).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순교자 등)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살전 4:16; 계 20:4-5), 다음으로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살전 4:17).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시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마 10:28). 즉, 악한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5:29; 계 20:11-15), 선한 자는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를 가리켜 ‘마지막 날’(요 6:39-44), ‘주 강림하실 때’(살전 4:13-18),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고전 15:51-55)라고 묘사하였다.

- * 부활에 대한 연구 자료 추천 1.부활 [復活, resurrection]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말씀사, 2.부활 (IVF) 3.부활 논쟁 (플러신대원설립자), 4.하나님의 아들의 부활(Wright ,N.T.)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행20:24)

“The Task the Lord Jesus had given to me!” (Acts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개역개정)

- 강 용중(Joshua YJ Kang) 간사(현 DCF-USA 간사)
- 소개 : PNP Engineering, Inc. 대표/ Professional Engineer (P.E.)



I. 유대 역대 왕들을 통한 교훈

II. 제자선교회 미주지부 (DCF-USA) 소개

III.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자포럼 -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비전 연구

오승철 목사(DCF본부간사, 새벽이슬교회 담임)

■ 마태복음의 주제

1.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2. 예수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3.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1.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2.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3.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전략

1.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1) 나라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2) 하나님 나라의 모형:

① 창12:1-4, 아브라함의 언약,

② 역대상하, 다윗왕조와 예루살렘성전

3) 하나님의 주권(통치): 개인, 공동체, 영역, 지역, 시간과 공간

4)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5) 미래적 하나님 나라(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2.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시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1)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 가장 명확한 징조는? 마태복음 24:14

2) 그러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3)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란, 무엇인가?

※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것이며, 그 기준도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고 예상할 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3. (하나님 나라 완성의 전략)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마태복음 28:18-20



제자포럼 - 직장에서의 제자삼기

- 강부형 목사(DCF 간사, 책과 사람 대표)

참고 도서

일터교회가 다가온다 (피터 와그너) WLI 출판사

일터사역 (오스 힐먼) 생명의 말씀사

제자도 (존 스토티) IVP



제1장 일터(직장)의 의미

교회와 직장에 대한 해석의 전환(루터가 주장했던 만인제사장의 의미가 퇴색)

척 피어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보좌를 향해 올라가야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보좌로부터 내려와야 한다”

또한 지역 교회의 개념처럼 일터 속에서도 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일터 속에서의 교회개념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혁명적 발상이다

(피터 와그너/일터 교회가 다가온다)

주일학교 개념이 교회안에서 받아들여지는데 100년이 걸렸듯이 일터교회의 개념도 언젠가 교회가 받아들일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와 사회의 변혁이다.

사회적 변혁은 일터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가능하다.

세상의 일터가 전통적 사고처럼 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지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1. 헬라 사상의 영향

플라톤은 절대 진리를 추구했고 이데아인 <형상>과 <질료>로 구분했다.

그는 육체적인 노동을 질료로 구분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다.

2. 성경의 사상

성경적인 사상(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다.

플라톤은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의 엄격한 구분을 지었지만 성경은 모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3. 일터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클레시아)이라는 의미다. 성도들이 교회 자체이며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교회는 지역 교회로만 충분인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

일주일에 하루 사역하는 지역 교회의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인가?

5-6일 동안 직장에서의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성경적 일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아바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8:1) 경작하다는 단어도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다.(창2:5) 현대 유대인들도 예배는 아바르를 사용한다.

제2장. 직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직장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일하는 직장 역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영역(종족)이다

1 - 타민족 선교(해안 중심)

2 - 내지 선교

3 - 미전도 종족

4 - 직장 선교

제3장. 직장에서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 -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2) 인격(겸손, 권위에 순종, 배려, 인내, 대인관계)

3) 내려놓음 (물질, 승진)

제자포럼 - 청소년 제자 삼기 (학교 상황과 개인 간증)

- 상암고등학교 & 밝은교회 교사 이재원

● 소개

- 2000년에 기독교사 대회에서 성령체험 후 예수님을 믿게 됨.
- 2001년부터 몇 년 동안 강수환 간사님께 교사 제자훈련(양육)을 받음.(YDCF)
- 2004년부터 밝은교회 중고등부 교사가 됨(박학규 목사님과 함께)
- 2005년에 성서중학교에서 창조과학반(CA)을 운영.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암중학교에서 사랑나눔반(기독교학생반 CA)을 운영(박동렬 간사님의 소개로 성천교회 교육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서공업고등학교에서 기독교학생반(CA)을 운영하고, 점심시간 성경읽기 모임을 함. (신우회 선생님의 소개로 오형교 목사님, 유영춘 목사님, 전산 주무관 목사님 등의 도움을 받음)
- 2017년에 상암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 성경 읽기 모임을 함.(만민 중앙교회, 발달장애)



● 최근 학교 상황

-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나가는 학생 수(비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함.
- 동아리 활동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운영이 매우 어려워짐.
- 점심시간의 자발적인 모임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나, 바쁜 학교생활 가운데 점심시간에 모으려면 학생과 교사 모두 단호한 결단과 헌신이 요구됨.

● 개인 간증

- 헌신이 부족한 까닭에 많은 열매(제자)는 없었지만, 나 자신의 성장과 구원에 도움이 됨.
-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이지 않게, 나의 성장 수준에 맞추어서 거부감 없이 천천히 따라갈 수 있도록 자상하고 온유하게 인도해 주심.

제자포럼 - 중동의 마지막 대로

최경복(YDCF 3기 / 인터콥 선교사)

(이사야 19:23-25)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소개

가락고등학교 YDCF 3기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료

현재는
인터콥 중동 선교사로 7년간 중동에서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1. 그루터기 남은 자들 - 중동 교회

2. 땅끝 민족 교회의 선교 부흥 - 세계 교회 선교 연대

기관선교 보고 - 비전과 소명

김영준/이기쁨 선교사(DCF 인천지구 / 남아공 선교사)

저희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경을 넓히자” (Widen the bounds with knowledge of the Lord -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래

1.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선포, 교육, 치유 - 마태복음 4장 23절) 과
2.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삶과 예배 (로마서 12장 1-2절)말씀에 기초하여 문화사역과 예배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남아프리카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며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며 반면에 아프리카

에서 가장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로 인구 20퍼센트 미만의 백인들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 총 오천만명의 남아공은 타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백인 거주 지역과 흑인 거주 지역이 현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삶은 어둡고 차별당하며 가난하고 극빈자들이 많아 나라 전체에 심한 범죄와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런 빈부의 차이가 심한 이유와 인종 차별에 의해서 아직까지 서로 다른 종족들을 경계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델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한지 이제 10여 년정도 밖에 안되었으며 만델라 대통령의 인권운동에 의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차별 정책)가 종식되었지만 사실 아직까지 인종 차별은 그 영향력이 사회, 정치, 문화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 정부는 흑인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가 주도하는 흑인 정부로 부패의 근원이었던 주마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 직을 맡고 있지만 아직 많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총 11개어가 사용되고 있고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사실 각 종족별로 영향력이 크다보니 모든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가장 영향력있는 순서로 줄루어, 코사어, 아프리칸스어, 페디어, 영어, 추와나어, 수투어, 송가어, 스와지어, 벤다어, 은데벨레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한국 12배 크기의 면적으로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계절은 뚜렷한 편이지만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기에 바닷가 지역 도시들은 계절 변수의 폭이 엄청나게 큼니다. 수도는 프레토리아(행정), 블롬폰테인 (사법), 케이프타운(입법), 세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흑인 정부가 자리를 굳히면서 이로 인한 백인들의 부를 강제로 탈취하고 착취하려는 흑인 정권이 날로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최근 남아공의 지역 이름이나 인터내셔널 공항이름을 영어 이름에서 아프리카식 이름으로 바꾸고 백인들이 소유한 팜, 농장을 뺏으려는 운동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Port Elizabeth에 거하게 하심..

이러한 남아공에서의 저희 사역은 한인이 약 10가정 정도 거주하고 있는 Port Elizabeth 의 (남아공 도시중 5번째로 큰 도시)walmer 흑인 타운쉽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도시는 한인이 적은 관계로 한국음식이나, 문화를 거의 찾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 사역

저희는 매일 월머 타운쉽 안에 위치한 John Masiza 흑인 정부 학교에서 6,7학년 대상으로 약 오백명의 아이들에게 컴퓨터 IT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함께 포함해 각 수업마다 양육 훈련과 예배의 현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는 이 곳 학교뿐만 아니라 , 주변학교 특히 월머 흑인 타운쉽 중심의 학교들에 내재되어 있는 약 5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과 미디어, 찬양 사역을 위한 준비된 선교사님들의 동참을 원하며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들이 이곳 저희가 준비한 터 위에 더 모여지기를 기도해주세요.

● 저희의 선교 전략

이곳 월머지역을 포함해서 남아공 전체 흑인 타운십내의 컴퓨터 보급율은 거의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교육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부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일용직이나, 상가 점원, 백인들 가정의 가정부, 막 일, 또는 거리의 아이들, 무직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단교회나, 조상을 예수와 동일시해서 같이 섬김을 강조하는 아프리카 토속 교회등, 에 눌러서 진짜 정통 교회들은 흑인 타운십내에 극소수인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 사역과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남아공에 20년을 거주하면서 주 사역을 학교 사역과 가르키는 사역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8년간 고아학교와 팜 스쿨 사역 그리고, 지난 12년간 존마시자 학교에서의 사역을 통해 약 오천명의 학생들이 저희를 통해 컴퓨터를 배웠고 수 많은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양육 모임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3년도에 저희 사역이 교육부에 알려지면서 정부로 부터 컴퓨터 40대를 지원받았고 이에 남아공 방송 3사와 신문을 통해 사역이 보도되고 남아공 전국에 7시 저녁 프라임뉴스 시간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사역이 올 해도 동일하게 6학년 이백 오십여명을 가르쳤으며 양육했고 이들중 시험을 거쳐 컴퓨터 기본 과정 수료증을 수여 했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을 통해 거의 매일 양육 모임을 해서, 소규모이지만 예수님을 가르치는 양육훈련이 아이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있습니다. 각 수업마다 약 오십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저희 교실에 들어 오고 있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 찬양을 배우고 예수 영화를 보게하며 복음에 대한 비디오 클립을 통해 예수문화가 삶가운데 심어지게 하고 있고 특히 남아공에서 영향력 있는 언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용어가 되지 못해 대중적으로 죽어 있는 코사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기에...(문자적으로나 악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구어로만 퍼지는 코사 찬양에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 찬양을 가르쳐, 아이들이 코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지 백인 교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찬양 리더나,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 배워진 찬양은 아이들이 이곳 존마시자 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부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연히 복음을 전파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 찬양을 가리킨 일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크게 복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아 더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저희 교실이 단순히 교실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한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흩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주도했고 그 가운데 아이들과 양육모임 장소를 옮겨가며 모임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해온 선교센타가 준비되면서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확정되어 감사하고 단 타운십과의 거리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차량 구입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헌금이 모여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타의 셋팅,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와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1. 함께 일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2. 센타 사역(예배, 양육, 가르치는)을 위해서 차량구입과, 안정된 사역으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양육하는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와 후원을 해주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관선교 보고 - 국내 이주민 선교와 제자사명

허은열 선교사(DCF 인천지부 대표, 씨앗선교회 대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창1장 26-28절 말씀“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 문화명령, 통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한 가정(창4:1)이 탄생하므로 한 도시 에녹성(창4: 17)이 건설되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창조물인 도시가 타락하므로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도시의 문화로 이어집니다. 소돔, 고모라, 바벨론, 니느웨, 두로, 시돈, 로마, 다메섹, 예루살렘, 아덴...



그러나 그것은 마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할 구속의 대상입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라는 지상 위임령, 대위임 명령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상태에서 명령하신 최초의 문화명령과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위임령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충만하여’는 ‘제자를 삼아’, ‘다스리라’는 ‘가르쳐 지키게하라’에 각각 해당하는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두루 다니시며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을 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지상 위임령, 즉 The Great Commission의 핵심은 제자삼기, ‘Make Disciple’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주민선교와 제자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Disciple)라는 말은 헬라어로 ‘입니다. 그 동사는 ‘로 ‘배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배우고 닦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1) 요 8:31

2) 요13: 34-35, 15:13

(1) 씨앗선교회 무슬림사역 간증

(2) 남동공단 D,A 선교회 한글교육, 무슬림 사역등 소개

3) 요15: 4-8

(1) 한국내 이주민(무슬림) 선교 실태 점검

(2) 한국내 무슬림 사역자(교회, 선교회) 실례 소개

(3) 한국내 무슬림 선교 열매 점검

이제 사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명과 소명을 좀 구분합니다. 먼저 사명은 갈1:1에서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그리스도 및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때 사도는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갈 2:7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때 무할례에게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바울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 예수님의 소명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이 되겠지요.

사명은 소명으로 가는 과정의 직분입니다. 사명을 ‘Work for God’이라고 한다면 소명은 ‘Vision of God’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달란트와 은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소명(Calling)은 라틴어 Vocare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업, 특히 천직을 말할 때 Vocation이라고 하지요. 이 때 직업이 소명이 되려면 합법성, 윤리성, 도덕성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사역자로서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분명한 소명의

식이 있어야 합니다. 천직을 통해, 아니면 저같이 이주민을 섬김으로, 아니면 대학생, 중고등학생 선교, 군선교, 지하철 선교, 노인복지선교등등... 이것이 소명입니다. Vision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 선교회에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한 나의 소명을 찾아서 급변하는 다양한 사회속에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과 소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가 늘 기도하면서 외쳤던 캐치프레이저가 생각납니다. 제 사역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지요.

“기도의 영, 성결의 영, 선교의 영을 받아, ‘장사의 수종의 화살같이’(시127:4) 하나님께서 쓰시는대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언제나, 주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며’(행20:24),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계 2:10)이라는 구호 말입니다.

전도(선교)는 인간의 존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포스턴모던 시대에 문화 다원주의를 살아가면서 문화적 경계가 불분명한 이때 타문화적 통찰력을 키우는 것은 전도에 있어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초기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켜 선교사로 파송하여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사역(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며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강의가 제자 선교회와 서로 교차하며 공존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자선교회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이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예배

- 1) 수요일, 금요일예배
- 2) 주일 12시: 전체예배. 2시: 국가별 예배
- 3) 주일 집중 성경공부: : 아잉, 탭, 황, 틴띠리
- 4) 수시: 무슬림 방문예배

2. 한글교육

- 1) 주일 2시- 초급반 2)주일 4시-중급반

3. 사역 담당자를 위해

- 1) 전체예배 및 무슬림 담당: 허은열 목사
- 2) 한글교육: 이경애 사모
- 3) 예배 및 성경공부: 송창남 목사, 오세균목사
- 5) 노동,의료,임금채불,회사,가정폭력등 상담: 신주균목사
- 6) 1대1제자훈련, 식사, 청소담당: 이은실 사모

-2019년 사역을 위한 기도-

- 1) 인천내 외국인 연합 부활절 예배 준비를 위하여.
- 2) 귀국한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현지교회(예배공동체) 설립을 위해
- 3) 2019년도 계획중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

-캄보디아 씨앗센터를 위해서-

1. 좋은나무 국제학교(교장)를 섬기고 있는 박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2. 지난해 10월에 고학생 10명이 국제이주민씨앗센터 창립13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 갔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저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씨앗선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귀국한 외국인들이 현지선교사와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관선교 보고 - C국 선교

이 도마 선교사(DCF 인천지부, 중국선교사)



사역지 : 중국 동북삼성
사역 대상 : 중국 교회 지도자 (말씀 사역자)
사역 기간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역 내용 : 성경을 책 별로 공부하기 (귀납적 성경 연구반)
사역 목표 : 학생들(사역자)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 (행18:24)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게 하며

그 사역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서 (딤후2:2) 2020년 이후 세 지역에 독립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가의 단풍이 화사했는데, 이곳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중국은 온통 흰 눈에 덮여 탄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안전 때문에 공부하는 모임 장소에서도 커튼을 치고 끼어 앉아 공부를 하면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한 후 목소리 낮춰 조심스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던 D 시에서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거나 출국했고, 종교국의 허락을 받지 못한 한인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고, 모 국제교회에서는 내국인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젊은 흑인 목사를 감옥에 보름 동안 구금했다가 본국으로 추방하였고, 뉴질랜드 선교사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가 역시 추방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적발되면 최소 보름 동안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교회 십자가는 거의 다 철거하였고, 국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며 심지어 국가를 부르는 교회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입구에 정부의 종교정책을 기록한 '종교 사무 조례'라는 큰 액자가 네 개나 걸려있었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18세 이하의 청소년 출입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주일에는 한쪽 교회에서 설교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을 들여다 보는 것도 위험을 느껴, 바로 성도의 가정으로 가서 6일 동안 강의만 하고 기차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M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밤기차로 이동하여 새벽에 G 지역에 도착했지만, 주일인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머물다가, 오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지도자들은 늘 30명 정도로 모였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10명 정도로 제한하자고 약속했었는데, 40명이 넘게 모여있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한 제자가 몇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경 강의를 하였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며 저를 꼭 한 번 초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지역에서 몰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제게 오는 사람은 다 받고, 저를 오라고 하는 곳은 다 가겠으니 주님께서 선별해 주십시오"라고 서원한 바도 있고,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강의를 강행하면서, 한국의 지인들과 중국 여러 지역의 제자들에게 급히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는데, 기도해 주심을 힘입어 은혜 가운데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지에 초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사역을 접고 철수하는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D 시에는 제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럿 있고, 그중 크게 부흥했던 갈보리산 교회는 해산하라는 정부 명령때문에 지금 5개로 나뉘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조(小組 구역)로 모임도 갖고 있는데, 말씀 인도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가, 제 제자 수판딩 형제와 통역 박영연이 말씀 사역자로 합류하면서 교회가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어 얼마나 다행스럽고 대견한 지 모릅니다. 수판딩(36) 형제는 장쑤에 자매와 내년 초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중 략 -

그동안 처리하던 M 시에서 철수하면서 통역 영연이를 이곳 D 시로 옮겼고, 딸 은혜는 조선족 학교에 TO가 없어 부득이 한족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있으며, 남편 이준우는 저렴한 차를 마련하여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적어도 2020년까지는 사역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이제는 그 후를 준비하여야 할 것 같아

이곳 D 시로 옮겼는데, 여러가지로 잘 된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영연이와 수판딩이 이곳 교회를 도우면서 설교자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대견하고, 교회도 안정되고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어느새 12월 연말이네요. 그동안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심을 힘입어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 기도 해 주세요.

제 중국 사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저와 학생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 중국 교회들이 정부의 핍박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도록
세 지역의 성경 신학교가 2020년 이후에도 존속하여 이되어지기를
제자들이 잘 배워서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판딩과 영연이가 D 시의 갈보리산 교회와 함께 성장해 가도록
통역 영연이 가정에서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에게 건강 주시고, 국내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2018년 11월 27일

할 일 많은 광활한 땅 중국에서 이 도마

기관선교 보고 - 군선교에 대하여

정기한(DCF 간사 / 28사단 전차대대 충성교회 담임)

28사단 전차대대 충성교회 군선교 상황



1. 교회 현황 :

- 1) 28사단 전차대대 (연천군 군남면 소재)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이고 부대에 들어갈 때는 보안 점검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 2) 현재 병사들이 50-6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사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서너명 나오는데, 이들은 가끔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부대장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 적극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군 전도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 3) 주일 예배와 절기 때에는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절기 중에는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4) 훈련이 있을 있을 때에는 위문을 가고요. 훈련 떠 날 때 기도를 하고 훈련을 떠나기도 합니다.
- 5) 군종들은 7명 정도 있습니다. 대대 군종과 중대군종으로 되어 있고 세명 정도 찬양단원도 군종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군종들도 제대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군종들이 교체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군교회의 특징입니다.

2. 교회 재정

- 1) 군인교회는 국방부 교회 운영 지침에 의하여 민간인 사역자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는 방법으로 사역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간식비 마련을 위하여 개인후원을 요청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행사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매주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후원은 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큰 행사를 위한 사역비가 지원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 기도제목

- 1) 충성교회에 오기전에 섬겼던 28사단 신병교육대 만남의 교회와 82연대 소나무교회와 연계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사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병교육대 교회는 사단 현역 목사님과 제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82연대 소나무교회는 전곡에서 민간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병행하여 설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 2) 충성교회는 기갑부대로서 하사관들이 많은 부대입니다. 전체 군인들 중에서 반 정도가 하사관 및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사관들을 잘 전도하고 훈련하여 전도 일꾼으로 사역하게 하면 복음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 군인으로서 계속 부대에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이들이 변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 3) 대대장님이 집사님이라 부대장의 도움을 받아 내무반과 부대 근무지를 방문하여 전도하는 것을 새해에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방활동을 통하여 군부대 전체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 4) 간부들을 중심으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합니다. 이들은 직업군인들이라 제자로 양육하기만 한다면 다른 부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 5) 2019년에는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교회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교회에서 200명 출석에서 500명까지 올렸던 경험이 있기에 충성교회에서 100명까지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그룹 모임 A-Type¹⁾

(공통 질문)

1.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름, 교회/사역, 학교/직업 등)
2.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때 만남의 기쁨은 어떠했나요?
3. 당신은 어떤 동기로 혹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셨나요?

(선택 질문)

아래의 질문 중 3개를 선택하여 나누어주십시오.

1.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추웠던 시간은 언제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2. 당신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DCF를 만나게 되었나요?
3. 당신이 DCF를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와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4. 당신은 현재 DCF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나요?
5. 당신은 앞으로 DCF가 어떻게 세워져가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 6-1. 당신은 DCF의 강점과 약점이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6-2. 당신은 DCF의 강점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 A-Type: DCF에서 훈련받고 사역했던 분들, 혹은 지금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분들

소그룹 모임 B-Type²⁾

(공통 질문)

1.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름, 교회/사역, 학교/직업 등)
2.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때 만남의 기쁨은 어떠했나요?
3. 당신은 어떤 동기로 혹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셨나요?

(선택 질문)

아래의 질문 중 3개를 선택하여 나누어주십시오.

1.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추웠던 시간은 언제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2.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은 언제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3. 당신이 2019년도 하나님께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제목 3가지는 무엇인가요?
4. 당신은 2019년도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하나요?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5. 당신은 앞으로 5년 후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기를 소원하고 있나요?
- 6-1.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죽기 전 중 선택)
- 6-2. 당신은 그러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2) B-Type은 DCF 예비가족들을 위한 질문내용입니다.

● 선교사들의 선교 Letter와 소식들

수련회 핸드북의 끝자리에 해외 지체들과 DCF 파송과 협력 선교사들의 사역편지들과 소식들을 올립니다. 정기적으로 소식을 듣는 지체들도 있지만,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궁금해 하는 지체들도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어떤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편지 한 장 전체를 올리기도 했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약간의 소식들만, 또는 분명 DCF의 파송, 또는 협력 선교사인데도 전혀 그 내용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아쉬워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서 [제자비전]을 세계 곳곳에 실천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또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여기에 약간의 내용을 올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 중략 -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20절



박기환 선교사님

DCF의 가장 초창기 파송선교사로 여전히 필리핀에서 열심히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가족의 장례식으로 잠깐 한국에 나오셔서 교제도 하였습니다. 강건하게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성우/김영미 선교사님 잘 아시죠? N국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시잖아요. 올해 김영미 선교사님의 암치료의 시간을 가졌고, 그것이 완치되어 사역지로 가셨는데, 다시 암이 재발하여 또 다시 항암치료 중에 있어요. 그 가운데 이성우 선교사님은 N국의 사역지로 12월말에 홀로 출국했어요. N국에서 사역하는 이성우 선교사님 가운데, 한국에서 항암치료 중에 있는 김영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제자선교회 미주지부(DCF-USA)

수련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금식과 기도 덕분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추수감사절 기간(11/22-11/24)에 2박 3일 동안 개최된 2018년 제자선교회 미주지부(DCF-USA)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해마다 수련회를 해 오던 베델 교회에서 운영하는 "갈릴리 수양관"이 지난 8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입로가 막혀 사용할 수 없어서 여러 곳을 찾다가 발견한 Pinon Hills라는 곳에 있는 "소망 수양관"에서 가졌습니다.

- 중 략 -

첫 강의는 전체 강의로 어른들과 Youth 모두 참석하는 시간이었는데 강단은 자매의 통역으로 제(강 용중 간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24을 중심으로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사명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에 대해 나누고 911 때 뉴욕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며 바울 사도가 가졌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기 않는" 절박한 사명에 대해 나누었고, 또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 만나요"라는 북한 성도의 비디오 Clip을 보여주면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을!"을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어른들 저녁 강의로는 강보형 목사님께서 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바쁜 한국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매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올해는 어른들 세 번, Youth들에게 한 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눅 8:4-15)", "모든 이론과 생각을 복종케 하려고(고후 10:4-6)"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요1:1-14)"이란 제목으로 세 번 나눠 주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후 기도 시간에는 각 가정 별로 축복기도도 해 주셨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는 조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으로 와 계신 허수성&김인영 선교사님께서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여 어른들과 Youth들에게 각각 두 번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태국 현지에서 묻고 난 이후의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간증해 주셨고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품으로 간 딸 "린"이가 태국 선교의 귀한 씨가 되어 장례식 이후 딸 "린"이가 다녔던 선교사 자녀 학교의 학생들과 현지인 청년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한 장례식 이후 세워진 장학재단으로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또한 미래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독교 학교 설립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게 일하심을 나누어 많은 감동을 주셨고, 특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린"이의 간증으로 만든 책 "MK 천국을 가다"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한 영문판이 조속히 나오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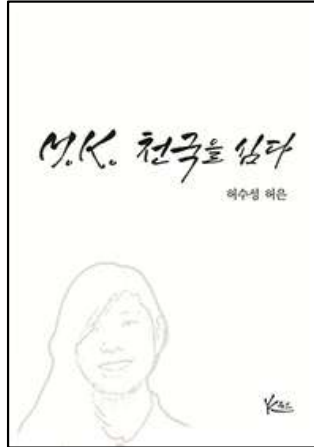
- 중 략 -

올해 GBS는 1과를 제외하고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문제가 난해해서 대부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각 조의 리더들이 지혜롭게 잘 인도해서 마친 것 같습니다. 1과는 사명에 대해, 2과는 사명과 관계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전반부를, 3과는 로마서 8장 후반부를 나누었는데, 작년과 제 작년에 계속 나누었던 "복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전해야 하는 지", "복음의 능력"과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등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복음과 부활"에 관한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친교를 위해 강단은 자매의 인도로 전체가 교제하는 Fellowship Activity 시간을 가져 모두가 협동심을 키우고 휴식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하는 분들의 기부로 Youth들이 좋아하는 Gift Card를 많이 선물로 마련하고 게임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 기간 중 제일 Hot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상을 깨고 최고령이신 목사님과 권사님께서 게임에 너무 몰두하시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각 조의 승리를 위해, 특히 자기 조의 Youth들이 상을 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 중 략 -

저희 수련회를 위해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동남아에서도,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전세계에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과 말씀 강사로, GBS 리더로 섬겨 주신 분들과,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과 시설 관리와 음식 준비 등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묵묵히 섬겨 주신 분들과 무엇보다도 금식하며 기도로 같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강 용중 간사 드림 DCF-USA



어느 듯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12월의 중반에 이르렀음을 문득 깨달으면서 동시에 올 한해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여러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 **은(Ellen)이의 천국 환송**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연초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막내 딸 은이를 13세의 어린 나이에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 가정에 이 딸의 순교를 태국을 위한 천국의 씨앗(A Seed of the Kingdom of God for Thailand)으로 심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미국 뉴욕으로 데려오지 않고 대신 태국의 조그마한 시골인 딱(Tak) 지역에 아이를 묻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M.K.천국을 심다]라는 책이었는데 지난 8월에 출판이 된 후 많은 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계속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거듭 거듭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에 있든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 **허 은 교육재단 Ellen Her Foundation**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은 부족한 저희 가정에 더 풍성히 임하면서 저나 아내 그리고 린이 모두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인내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은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허은 교육재단 Ellen Her Foundation이 미국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들이 현재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재단의 로고와 엠블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고와 엠블럼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 교수님과 또 펜실베이니아에 계시는 오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한국어로 만들어진 은이의 책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 곧 영어 버전도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은 교육재단 Ellen Her Foundation을 통해 세워질 태국의 기독교 학교와 더불어 태국인 지도자 양성, 현지인 장학금 지급 그리고 교회 개척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 소식**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이하여 린이는 현재 저희들과 함께 WEC US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의 Camp Hill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말에는 뉴욕에 계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오랜만에 온 가족들과 함께 연말과 새해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말씀 나눔을 위해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볼 때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아픔의 시간이었고 그 아픔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로하며 다가올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개인의 영육간의 건강 위에 그리고 사역과 직장 위에 무엇보다도 각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 드리며 펜실베이니아에서 2018년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18년 마지막 달에
허수성,인영 린 선교사 가정 드림

탄자니아의 조양호 선교사님의 선교 Letter

*** 2018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2019!! ***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강 용중 간사님과 DCF 여러분께,

2018. 12월

우리를 구하러 세상으로, 우리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성탄인사 드립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귀한 우리 DCF 를 통해,

여러분의 능력 많으신 말씀 사역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 감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짧은 소매의 셔츠를 입고, 반 바지를 입고, 선풍기를 쏘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 이어!!” 인사 드립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요즘 날씨가 42도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더운지 매일 익어가는 느낌입니다.

올해는 더 ~ ~ ~ 많이 덥다는 느낌입니다.

킹스 비전 중학교는 모든 학년이 시험을 치루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1월 7일에 개학하는데 방학 동안 더러운 사탄의 색을 탐내지 않고,

주술사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영육이 건강하게 지키심을 받아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선사하는,

더 밝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 해 주시고,

특히 모슬렘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 되어지고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 바다 어린이 예배!!

편안히 쉬실 수도 있으신 상황에서도

탄자니아 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열정을 쏟으셨던,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시던 홍 신옥 선교사님(71세)께서

세밀한 치료를 받으셔야 할 병을 인하여 귀국하셨습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기특하고 사랑스런 이 아이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저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밖으로 전해 흘러나가

이 땅, 이 아이들이 새롭게 하심을 얻어 귀한 주의 자녀로 양육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 아이들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죄로 찌어져가는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주소서!! 아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그분의 사람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있어 아름다운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조 양호 선교사드립니다.

러시아의 장석천 선교사

로스토프 선교상황 보고 및 기도제목 Letter

110만 명의 도시 로스토프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기에 많은 분들이 지난 번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액수의 선교비가 채워졌습니다. 주님께 영광돌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주신 여러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간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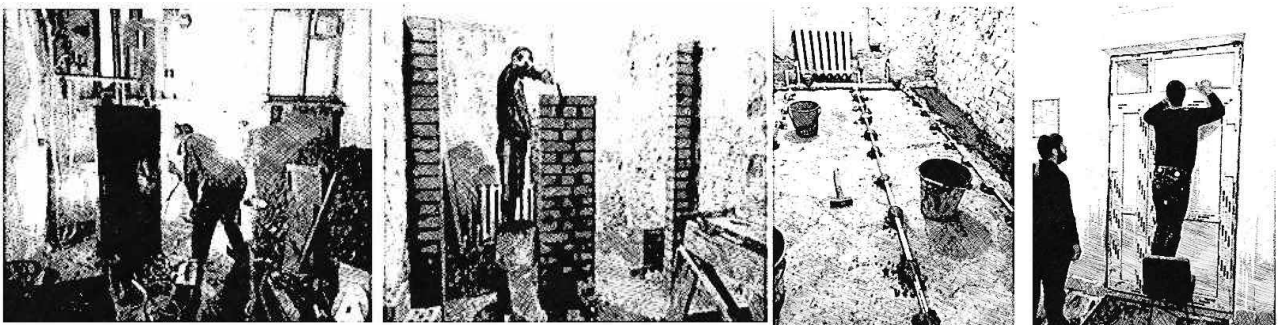
그런데, 선교지 상황은 시시로 변하고 있어, 예상하지 않았던 재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계속 영하권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요즘, 난방문제가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몇 주 전부터 아프리카 유학생 자매가 예배당이 너무 춥다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층 짜리 선교센터가 워낙 규모가 커서 현재 석탄보일러로 3층은 거의 난방이 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매우 추운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용접했으나 계속 문제가 지속되어 급하게 지난 주에 새 보일러를 모스크바에서 주문하게 되었고, 낡은 창문에서 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10개의 창문도 이번 주에 교체할 예정으로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본당의 낡은 큰 문 3개는 바꾼 상황입니다.

가장 부담이 되었던 땅벌금은 10월 말경에 지불했습니다(\$ 10,150). 교회은행구좌를 통해서 지불해야 하는데 교회은행구좌가 닫혀 있어서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간신히 마감일 안에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1층의 화장실은 리모델링 중이고, 2층의 남자, 여자 화장실은 새로 화장실을 만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1층부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전기시설, 지붕도 일부 고치고 곳곳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보일러 900평방미터용량, 2,900달러, 창문 1,200달러, 화장실 예산초과 금액 약 2,000달러 정도...).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로스토프 지역에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의 지혜로운 준비와 한글학교 교사와 동역할 단기 & 장기 선교사님을 보내 주시도록
2. 교회 난방장치가 잘 준비되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필요한 손길을 붙여 주시도록
3. 보일러, 화장실 공사, 소방시설 공사 등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도록,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 해외의 선교사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많이 빠졌어요). 물론 해외의 지체들은 더 많이 있죠?
 과테말라 김상돈 선교사(DCF)
 필리핀 정용석 선교사(DCF 성결대지부)
 남아공 김창복 선교사(DCF 서울지부, CCC 선교사)
 인도 김혜란 선교사(YDCF, YWAM 선교사)
 캄보디아 정병대 선교사(DCF)
 알바니아 홍정희 선교사(YDCF, GMP 선교사)

December 2018

The Choi Family Newsletter

- 최병주/김미란 선교사(YDCF)

안녕하세요?

중앙아시아 A국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들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여러 분들의 기 덕분에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감사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달이 아마도 저희 가정 이 곳에 온 이후로, 가장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Platform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에 드디어 회사(지사)를 설립하고 등록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팀이 그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 뒤돌아 보니 저희의 계획과는 다른 아버지의 주권과 이끄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진 회사가 안정적인 비자의 Platform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이 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 부탁드립니다.

1. 고아원 사역 이야기



지난 여름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의 A국에서의 사역을 방향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더욱 낮은 곳, 더욱 어둡고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첫 번째로 지난 가을부터 이란국경 지역 방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하게 된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 현지의 한 고아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지난 11월 첫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쫓겨난 아이들, 부모를 사고로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25명 가량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7) ‘신원하라’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달래고 풀어주라는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서먹하기도 했지만,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준비해 간 게임도 하고, 축구, 농구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격주로 한번씩 줌리에 이곳에 가족들과 방문하기로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흘러들어가 그 어린 마음에 맺혀져 있는 것들이 달래지고 풀어지기를 기합니다. 참된 아버지를 만나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이란 국경 도시 방문 이야기



지난 이란 국경지역 L도시 방문을 통해 많은 현지인 가정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L도시에 사는 인구의 80%이상은 Taly'h족입니다. 저희가 사는 A국 남쪽 지역과 이란 북부에 주로 거주하며 10세기 이후부터 철저히 이 사람을 민족의 종교로 여기고 살고 있는 종족입니다. 현재 복음화는 0.0002% 정도도 안되며, 국경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관계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여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틀날에도 함께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방문했을 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버지께서 뜻하지 않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가 저희가 사는 수도(바쿠)에 일이 생겨서, 저희와 같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희가 타고 간 차량에 자리가 하나 남아서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올라오는 3시간 가량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의 해결과 성령에서 이야기 하는 죄의 문제의 해결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글고 오직 인간의 여러 방법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게 된 그 가정의 아버지는,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왔고, 이 사람은 자신들에게 종교라기보다 삶,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족과 친척들을 배반하는 것임을 담담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두운 영이 견고한 진이 되어 그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눈 앞에서 보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기드 이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과 기드를 통해 Taly'h 민족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기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의 최재명/방경순, 주아의 Letter

2018년 12월 29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신지요? 한해 동안도 힘써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엇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입니다. 복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소원하오며 2018년 마지막 선교편지 올립니다.

● 탄자니아 선교사역 목표

1. 선교사역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2.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영역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3. 그들 가운데 일군 될만한 인재들을 발굴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
4. 양육받은 제자들이 가깝게는 이웃에게 멀게는 해외까지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 교회개척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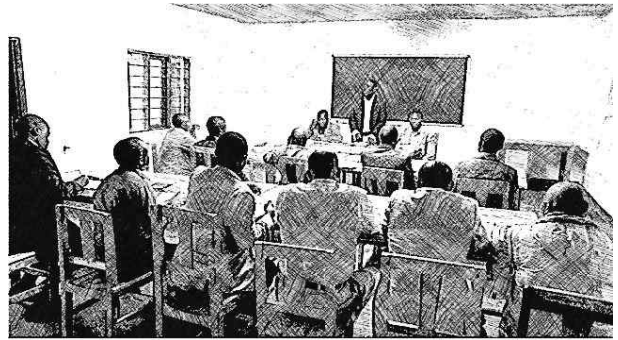
지난 4월부터 웰랄라(welala)지역에서의 전도활동을 통해서 약 2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웰랄라 마을의 촌장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촌장 집에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자가 세워지고 예배처소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월20일부터 25일까지 12개의 각 지 교회 별로 성경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모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세미나가 마쳐졌습니다.

- 중략 -

● 목회자 훈련원 사역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지 교회 13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1월세미나에서는 한해 동안 돌아보며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년도 목회일정과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은총배 노회를 개최했고 모두들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 성장과 교단 발전을 위해 각 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 중략 -



● 성경 신학교 사역

신학생 한 명을 잘 양육시키면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신학생을 양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신학과정은 3년과정이며 1년에 6회 1회2주씩 총 36주를 공부하게 됩니다.

- 중략 -

● 학교사역 소식

지난 9월에는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10월에는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2월7일 9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방학을 했고, 내년 1월7일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곳 저희 선교 사역지가 탄자니아 수도에서 버스로 15시간을 타고 와야 하는 오지이다 보니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에 그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교회의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장차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성장할 인재들인지라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역들에 대한 보고 중략 -

● 가족 소식

저희 가족 모두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이곳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딸 주아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 12학년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대학 진학을 위한 원서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동역자님 가정과 일터와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제목

1. 이곳 선교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2.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 이과차나 유치원개원을 위해
4. 이데테교회 예배처소와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5. 웰랄라교회에 예배처소와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6. 그룹홈 사역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7. 딸 주아의 대학진학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MERRY CHRISTMAS!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2:11)

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예수님은 4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 예수- JESUS (마1:21), 메시아-MESSIAH (눅2:11),
임마누엘-IMMANUEL (마1:23), 주-Lord (Luke 2:11).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있는 성탄절 되십시오.

정용석, 구효실, 선교, 은교, 혜교 드림.



제자선교회

Disciple of Christ Fellowship

2019년 1월 4일

발행 : 제자선교회 강수환